

C2002 2형혼합형(VU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2형혼합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한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2형혼합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010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0.04
운용기간	2024.10.01 ~ 2024.12.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2형혼합형(VUL)	자산 총액 (A)	3,141	3,051	-2.86
	부채 총액 (B)	2	2	19.41
	순자산총액 (C=A-B)	3,138	3,048	-2.87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1,506	1,480	-1.74
	기준가격 (E=C/D×1000)	2,083.94	2,059.91	-1.15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인출)할 때,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위] 4분기 KOSPI와 KOSDAQ 지수는 각각 전 분기 대비 -7.5%, -11.2%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로 조성, 방산 등 수혜 업종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피해주로 분류되던 2차전지 중심으로 신재생 업종은 큰 폭의 하락을 시현하였습니다. 분기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대두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였고 원달러 환율 급등하며 국내 증시 상승은 제약되었습니다.
 [채권부위]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따라 금리 상승 넘어 출발하였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2회 인하에 더해서 내수 부진, 국내 성장률 우려 등이 나타남에 따라 금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물 위주 금리가 상승하여 금리 하락 폭을 축소하며 마감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위] 국내 시장에 정치적 리스크가 추가되며 원 달러 환율은 급등하였고 미국과 한국의 주가 성과 괴리는 추가로 심화되었습니다. 현재의 금리-달러 강세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중국 경기 부양 및 미국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중국발 위주 경기 모멘텀이 작용하는 연초 시장 국면을 전망합니다. 12월까지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에서 낙폭 과대 업종 및 종목 위주 기술적 반등 국면을 전망합니다. 배당 정책 선진화로 인한 배당 이연으로 배당 대부분이 1분기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로 경성 주주환원 수익률이 올라간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권부위] 1분기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는 점과 가계부채 증가에 둔화로 인한 금융 안정 여건이 조성되는 점이 채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높은 환율 수준과 잔존한 트럼프 정책 관련 리스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2형혼합형(VUL)	-1.15	-1.36	-0.15	0.9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	-------	-------	-------	-------

2형혼합형(VUL)	0.95	10.93	-1.19	7.96
------------	------	-------	-------	------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4	-	-6	-	-	-	-	-	2	-6	-7
당기	-	2	-	-33	-	-	-	-	-	2	-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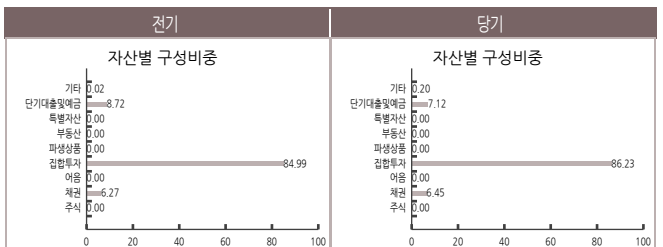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197	0	2,631	0	0	0	0	0	217	6	3,051
(1.00)	(0.00)	(6.45)	(0.00)	(86.23)	(0.00)	(0.00)	(0.00)	(0.00)	(0.00)	(7.12)	(0.20)	(100.00)
합계	0	197	0	2,631	0	0	0	0	0	217	6	3,051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48.27	6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3.84
2	집합투자증권	KODEX 코스피	23.08	7	단기	한국저금증기(REPO)매수(20241231)	3.28
3	집합투자증권	KODEX 국고채3년	10.05	8			
4	채권	국고02375-2812(18-10)	6.45	9			
5	집합투자증권	KOSEF 국고채10년	4.83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375-2812(18-10)	200	197	대한민국	KRW	2018-12-10	2028-12-10		NA	6.45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수익증권	1,393	1,473	대한민국	KRW	48.27
KODEX 코스피	수익증권	777	704	대한민국	KRW	23.08
KODEX 국고채3년	수익증권	295	307	대한민국	KRW	10.05
KOSEF 국고채10년	수익증권	146	147	대한민국	KRW	4.8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117	2.53	-	대한민국	KRW
REPO매수	삼성증권	2024-12-31	100	3.35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76	2,202,080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6	2,202,080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6	2,202,080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작성기준일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3	1	0.03
판매회사	5	0.17	5	0.17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6	0.20	6	0.20
기타비용	0	-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891	0.0011	0.7902
당기	0.7891	0.0011	0.7902

※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형혼합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